

부자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김 기 희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목 차 -

I. 부자도시 논의 배경 및 개념 설정	1
1. 부자도시 논의 배경	1
2. 부자도시 개념 설정	2
II. 부자도시 건설을 위한 여건 분석	3
1. 우수한 성장잠재력	3
1) 지속가능성지수	3
2)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	4
2. 부자도시 건설 가능성 분석	5
1) 생산을 통한 소득 확충능력 우수	5
2) 제조업부문 생산확충 여지 높음	6
3) 기업 유치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소득유발 가능성 매우 큼	8
4)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 가능성 높음	10
III. 부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 및 과제	11
1. 부자도시 추진 슬로건 및 전략	11
1) 부자도시 추진 슬로건	11
2) 부자도시 추진 전략	11
2. 부자도시 추진 과제	11
1) 기존산업 지원·보호, 안정화 유지	12
2)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	14
3) 유연하고 혁신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16

I. 부자도시 논의 배경 및 개념 설정

1. 부자도시 논의 배경

- 지난 2011년 1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에서 발표한 '2011 광영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지수'평가에서 대전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 16개 시·도 중 지속가능지수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환경부문에서 1위, 명성부문에서 2위

- 그러나 경제부문이 13위였음. 물론 이 지표만을 갖고 대전경제 전반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2008년 기준 대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하위권이지만, 개인소득은 14개 시·도 중에서 서울, 울산, 경기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 결국 대전지역 시민들이 사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생산수준이 적어 대전경제가 취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임.

- 따라서, 대전경제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통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2009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녹생혁신역량지수'가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대전이 가장 높은 1위이며, 2011년 발표한 '지속가능성지수'평가를 통해 환경부문에서 1위, 명성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역량과 지속가능성지수가 가장 우수하여, 대전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제 남은 과제는 대전의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대전경제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도시 전반적으로 '부자도시'를 건설하는 일임.

- 이에 지난 2011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임흥철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2011년을 '부자도시 대전'을 만드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중 것으로 당부하고, 정례기자회견에서 부자도시 대전건설의 원년을 위한 전략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부자도시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함.

2. 부자도시 개념 설정

- 부자도시란 개념적 정의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도한 연구가 없는 실정임. 다만,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의되어야 할 것임.
- 영흥철시장의 부자도시 기본개념은 경제활성화란 용어가 평이하여 '부자도시'란 개념을 대체 사용하였으며, 2011년을 경제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결국 영흥철시장의 '부자도시'는 대전경제의 파이를 키우자'라는 개념에서 기존 기업의 사업환경 조성, 외지기업 투자 유치, 그리고 신성장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시책의 개념으로 이해됨.
- 통속적인 부자의 개념은 개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상태를 말 할 것임. 이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면, 도시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들이 각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상태로, '삶의 질'이 높은 상태를 말할 수 있음.
- 부자도시는 도시전체의 경제주체를 시민, 기업, 지방정부로 분류할 때, 시민은 소비주체로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높은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생산활동이 활발하도록 투자, 생산, 판매 등 기업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져 높은 이윤을 획득하고, 지방정부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소득과 기업의 이윤을 높이도록 조직시스템이 강화된 도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부자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설정해 볼 수 있음.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경제성장률
 - 개인의 월평균 임금, 실질 연평균 가구소득, 소비수준 등
 - 도시 빈곤률 - 식품 지출비용, 주택, 육아 등 생활비용, 빈부격차
 -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방정부 재정적자 비중
 - 1인당 담세능력(2008)

II. 부자도시 건설을 위한 여건 분석

1. 우수한 성장잠재력

1) 지속가능성지수

- 지난 2011년 1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에서 발표한 '2011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지수' 평가에서 대전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 16개 시·도 중 지속가능지수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음
 - 환경부분 1위, 명성부분 2위, 종합 1위를 차지함.
 - 그러나 경제부분 13위로 하위권, 사회부분은 7위로 중위권
- 경제부분을 제외한, 환경부분과 명성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대전의 도시로서의 성장잠재력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표 1 > 2011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지수

시·도	경제		사회		환경		명성		총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대전	536.11	⑬	650.29	⑦	787.50	①	661.94	②	2635.83	①
서울	611.11	⑧	678.00	②	675.00	④	614.50	⑫	2578.61	②
경남	708.33	②	655.14	⑥	575.00	⑨	640.13	⑩	2578.60	③
경기	730.56	①	682.86	①	512.50	⑬	635.31	⑪	2561.23	④
전남	650.00	⑥	664.86	④	550.00	⑪	645.75	⑥	2510.61	⑤
제주	638.89	⑦	496.00	⑯	712.50	③	645.44	⑦	2492.83	⑥
울산	611.11	⑧	526.86	⑬	662.50	⑤	676.69	①	2477.16	⑦
충남	691.67	③	655.43	⑤	475.00	⑮	652.38	④	2474.47	⑧
광주	486.11	⑭	581.14	⑩	762.50	②	601.00	⑭	2430.75	⑨
충북	661.11	④	519.14	⑭	587.50	⑧	641.06	⑨	2408.82	⑩
부산	438.89	⑯	665.43	③	662.50	⑤	614.19	⑬	2381.00	⑪
경북	658.33	⑤	642.57	⑧	425.00	⑯	644.06	⑧	2369.97	⑫
전북	541.67	⑫	593.14	⑨	550.00	⑪	654.44	③	2339.25	⑬
강원	588.89	⑩	513.71	⑮	562.50	⑩	651.38	⑤	2316.48	⑭
대구	483.33	⑮	536.57	⑫	662.50	⑤	574.81	⑯	2257.22	⑮
인천	563.89	⑪	554.86	⑪	500.00	⑭	594.63	⑮	2213.37	⑯

자료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2011.1.

2)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

- 지난 2009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16개 시·도의 지역녹색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녹색혁신역량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녹색혁신잠재력 1위, 지역녹색혁신성과 1위, 지역녹색혁신노력과 의지 2위를 각각 차지한 결과 지역녹색혁신역량종합지수에서 1위를 차지함.
- 향후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녹색산업에서 대전의 우수한 녹색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녹색지식공급망(Green Knowledge Supply Chain) 체계를 구축하여 전 지역에 걸친 녹색혁신을 주도할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를 선도할 수 있음.

< 표 2 >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

시·도	지역녹색혁신 잠재력		지역녹색혁신 노력과 의지		지역녹색혁신 성과		지역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대전	0.260	①	0.208	③	0.264	①	0.732	①
경기	0.205	②	0.153	⑪	0.256	②	0.614	②
서울	0.165	④	0.224	②	0.223	④	0.612	③
경남	0.162	⑥	0.227	①	0.208	⑥	0.598	④
충남	0.192	③	0.146	⑫	0.212	⑤	0.550	⑤
광주	0.163	⑤	0.117	⑭	0.244	③	0.524	⑥
인천	0.153	⑦	0.168	⑥	0.191	⑩	0.512	⑦
부산	0.11	⑧	0.155	⑧	0.205	⑦	0.471	⑧
충북	0.106	⑨	0.153	⑩	0.196	⑧	0.456	⑨
전북	0.093	⑩	0.175	⑤	0.154	⑫	0.422	⑩
대구	0.079	⑫	0.124	⑬	0.185	⑪	0.389	⑪
경북	0.090	⑪	0.097	⑮	0.194	⑨	0.381	⑫
울산	0.061	⑬	0.192	④	0.088	⑮	0.341	⑬
강원	0.050	⑮	0.154	⑨	0.109	⑭	0.313	⑭
제주	0.042	⑯	0.081	⑯	0.142	⑬	0.266	⑮
전남	0.055	⑭	0.167	⑦	0.036	⑯	0.258	⑯

자료 : 「16개 시도의 지역녹색혁신역량 비교분석 및 발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12.16.

2. 부자도시 건설 가능성 분석

1) 생산을 통한 소득 확충능력 우수

(1) 전국대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 낮지만 인구 구성비 높음

- 산업특성이 유사한 주요 대도시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의 전국대비 구성비를 보면, 인구구성비는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2.3%를 차지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풍부한 인구의 생산인력을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생산활동에 투입할 여건만 조성되면, 그만큼 생산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표 3 > 주요 대도시 지역내총생산, 인구와 전국대비 구성비(2009)

(단위 : 억원, 천명,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내 총생산	10,660,837 (100.0)	2,574,363 (24.1)	558,508 (5.2)	329,170 (3.1)	497,016 (4.7)	220,557 (2.1)	244,049 (2.3)	503,642 (4.7)
인 구	49,773 (100.0)	10,208 (20.5)	3,543 (7.1)	2,490 (5.0)	2,711 (5.4)	1,434 (2.9)	1,484 (3.0)	1,115 (2.2)

주 : ()는 전국대비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2) 1인당 지역내총생산 낮지만 개인소득 높음

- 대전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수준은 16개 시·도 중에서 14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4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있음.
- 이는 생산활동의 확충을 통한 생산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현재의 높은 개인소득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이 결국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풍부하고 우수한 생산인력을 활용할 생산활동여건만 확충된다면, 지역민의 소득수준은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표 4 >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개인소득 (2008)

지 역	1인당 GRDP (만원)		지 역	1인당 개인소득 (만원)	
	GRDP	순위		개인소득	순위
울 산	4,711	①	서 울	1,737	①
충 남	2,872	②	울 산	1,664	②
전 남	2,730	③	경 기	1,342	③
경 북	2,532	④	대 전	1,295	④
서 울	2,435	⑤	부 산	1,258	⑤
경 남	2,303	⑥	경 남	1,232	⑥
충 북	1,981	⑦	광 주	1,229	⑦
인 천	1,776	⑧	인 천	1,212	⑧
경 기	1,762	⑨	충 남	1,187	⑨
강 원	1,744	⑩	대 구	1,187	⑩
전 북	1,588	⑪	제 주	1,159	⑪
부 산	1,576	⑫	충 북	1,149	⑫
제 주	1,576	⑬	경 북	1,148	⑬
대 전	1,568	⑭	강 원	1,059	⑭
광 주	1,528	⑮	전 북	1,042	⑮
대 구	1,312	⑯	전 남	963	⑯
전 국	2,076		전 국	1339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제조업부문 생산확충 여지 높음

(1) 산업단지 관리면적, 상대적으로 넓음

- 제조업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리면적을 보면, 인구 및 각종 시설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대전은 울산에 제외하면, 산업단지 관리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임.
- 이는 기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 등을 통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확충하면, 더욱 높은 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표 5 > 시·도별 산업단지면적(2010)

(단위 : 천㎡,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관리면적	3,255	31,650	37,010	18,288	21,178	71,673	78,353	101,098
구성비	0.3	3.0	3.5	1.7	2.0	6.7	7.4	9.5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리면적	18,624	58,019	95,303	79,961	219,280	123,149	103,892	1,606
구성비	1.8	5.5	9.0	7.5	20.6	11.6	9.8	0.2

주 : 산업단지 관리면적. 전국은 1,062,339, 구성비는 전국대비 구성비

자료 : 산업단지관리공단

(2) 제조업부문의 내생성 강한 생산 특성

- 제조업부문의 총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전국 및 주요 대도시는 경기도에 비교적 민감한 생활관련형 제조업이나 가공조립형 제조업이 발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전은 제조업 부문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총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들 기초소재형 제조업은 제조업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외부 충격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내생성이 강한 부분임.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시에 대전지역 제조업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사실도 이러한 기초소재형 제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대전지역의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제조업부문의 생산 특성이 내생성이 강한 구조로 되어 있어, 기초소재형 산업 중심으로 육성한다면, 안정적인 생산수준의 제고와 이를 통한 안정적이고 더욱 높은 소득창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표 6 > 주요 대도시의 제조업부문 총부가가치 및 구성비(2009)

(단위 : 백만원, %)

지역	총부가가치	제조업	제조업 구성비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전국	959,294,679 (100.0)	265,360,602 (27.7)	87,171,709 (32.9)	149,455,948 (56.3)	28,732,945 (10.8)
서울	232,225,654 (24.2)	10,793,188 (4.6)	1,563,003 (14.5)	3,429,245 (31.8)	5,800,940 (53.7)
부산	51,024,876 (5.3)	9,182,901 (18.0)	2,496,862 (27.2)	5,550,534 (60.4)	1,135,505 (12.4)
대구	30,260,962 (3.2)	5,855,349 (19.3)	1,936,302 (33.1)	3,308,909 (56.5)	610,138 (10.4)
인천	44,270,501 (4.6)	12,488,732 (28.2)	4,201,704 (33.6)	6,591,167 (52.8)	1,695,861 (13.6)
광주	20,171,953 (2.1)	4,678,127 (23.2)	436,408 (9.3)	3,656,880 (78.2)	584,839 (12.5)
대전	22,462,813 (2.3)	3,746,220 (16.7)	1,645,376 (43.9)	1,215,890 (32.5)	884,954 (23.6)
울산	39,800,684 (4.1)	26,924,964 (67.6)	10,628,415 (39.5)	15,848,731 (58.9)	447,818 (1.7)

주 :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은 전국대비 비중, 제조업의 비중은 지역별 총부가가치 비중, 제조업내 제조업유형별 비중은 지역별 제조업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Kosis

3) 기업 유치 및 수출 중대를 통한 소득 유발 가능성 매우 큼

(1) 대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 확충 여지 큼

- 대전의 제조업분야 규모별 사업체는 주로 300인 미만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주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를 1개 이상이라도 유치한다면, 매우 큰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곧 대기업 유치가 대전지역의 총생산 수준을 현재보다 매우 높이고 또한 소득 수준도 매우 크게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표 7 > 주요 대도시의 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구 분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국	302	114,711	175	116,583	111	409,870
서 울	23	8,440	8	5,426	3	4,550
부 산	13	4,804	8	5,318	3	8,412
대 구	11	4,106	7	4,530	1	1,633
인 천	15	5,916	7	4,022	3	17,232
광 주	1	456	5	3,208	5	16,809
대 전	9	3,614	2	1,128	2	3,489
울 산	17	6,541	15	10,378	7	59,328

자료 : 통계청, Kosis

(2) 수출 증대를 통한 높은 기업 이윤 및 시민 소득 획득 여지 높음

- 지역 기업의 수출액을 보면, 대전은 상대적으로 주요 대도시보다 수출액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전지역의 제조업이 내생성이 강한 기초소재형 산업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출활동이 부진하여 기업의 이윤 획득이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수출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 및 시민 소득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내 제조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표 8 > 주요 대도시 수출액 및 전국대비 구성비(2010)

(단위 : 백만불, %)

구 분	전 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울 산
금 액	466,384	45,348	12,374	5,193	21,022	11,581	3,546	71,384
구성비	100.0	9.7	2.7	1.1	4.5	2.5	0.8	1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4)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 가능성 높음

- 주요 대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보면, 대전지역은 전국 및 대도시보다 서울과 함께 제조업부문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제조업 생산기반은 취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서비스업 생산비중이 높다하여, 지역산업의 성장능력이 낮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음.

- 서비스업내 세부산업별 성장능력을 더욱 키우기 위한 구조고도화 전략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생산성장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특히 향후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전의 서비스산업부문 구조고도화 가능성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9 > 주요 대도시 산업구조 (지역내총생산 기준, 2009)

(단위 : %)

산 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농·림·어업	2.7	0.2	0.9	0.5	0.5	0.9	0.2	0.3
광·공업	27.9	4.7	18.0	19.4	28.3	23.2	16.7	68.1
전기·가스·증기·수도	1.7	0.7	1.9	1.3	2.5	1.2	1.2	1.3
건설업	7.0	4.2	6.4	6.1	10.3	6.1	6.0	4.9
서비스업	60.7	90.3	72.9	72.7	58.3	68.6	75.9	25.4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Ⅲ. 부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 및 과제

1. 부자도시 추진 슬로건 및 전략

1) 부자도시 추진 슬로건

(슬로건) → 대전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활성화
“잘사는 부자도시, 大田의 未來!”

2) 부자도시 추진 전략

- ① 기존산업 지원·보호, 안정화 유지
 - ⇒ 기존 일자리 유치를 통한 시민 소득 및 기업 이윤 보전
 - 전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새로운 기업과 투자 유치
 - 대덕연구개발 특구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 ②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
 -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 소득 및 기업이윤 창출
 -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 MICE산업의 발전 교두보 마련
 - 미래 신산업 육성
- ③ 유연하고 혁신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 ⇒ 경제성장 잠재능력 극대화
 - 유연하고 혁신적인 지속가능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 자영업주를 포함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④ 도시기반시설 확충
 - ⇒ 경제성장 잠재능력 극대화
 - 도시마케팅 추진
 - 문화예술 활성화
 - 기타 시민 삶의 질 향상관련 도시 인프라 확충

2. 부자도시 추진과제

1) 기존산업 지원·보호, 안정화 유지

① 전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개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확대 : 5,000억원 규모
 - 기술보증제 운영 확대 : 150개 업체
- 지역상품 판로 지원사업 다변화
 - 대전상품 판로지원 확대 : 세계요리사대회, IAC 등 국제행사 적극 활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 : 대기업 방문지원 및 구매상담회 추진
 - 지역기업제출 기획홍보 강화 : LCD제작, 중소기업청 사업연계 추천 등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수출 증대
 -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수출성과 극대화 등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 상품위주의 수출에서 상품과 기술이 융합된 복합무역 구현 : 대전-큐슈 경제교류 상담회 개최, 신생공동지역 등 타켓마켓 설정
 -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 자금지원 확충
 - 2011년 상반기 1천 700억원 지원 ⇨ 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기업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결
 - 1인 1사 전담공무원제, 해피콜 창구 운영 등으로 기업인들의 민원을 편리하게 도움
 -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제 철폐 및 완화
- 투자성화를 위한 조치
 - 대전시에 규제개혁 발굴팀 설치
 - 환경, 산림, 문화재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건을 만들고 기어도 지역을 위한 투자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

③ 새로운 기업과 투자 유치

- 기업유치, 해외자본 유치
 - 국내 기업 및 연구소, 콜센터는 물론 외국인기업 생산공장 등 외국인 직접투자

(FDI)를 적극 유치

-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대기업을 비롯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체를 지역으로 유인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음
- 특히, 규모 중심의 포괄적 유치에서 신성장 분야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 수출 40억 달러 달성 목표로 기업유치와 연계한 통상지원 시책 적극 추진

○ 대덕특구와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활동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첨단의료산업 관련 기업등

○ 특구내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신동지구(나노융합단지 835천㎡, 문지지구(벤처산업·주거 56천㎡)
- 둔곡지구(임대산업단지 활용, 관내 협력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 330천㎡)

특구내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신동지구(나노융합산업단지 835천㎡), 문지지구(벤처산업·주거 56천㎡)
- 둔곡지구(임대산업단지 활용, 관내 협력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 330천㎡)

※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최종계획(안) 확정('11년 3월)

○ 신세계의 복합유통시설 '대전유니온 스퀘어(가칭) 유치

- 서구 관저동에 국내 유통분야 대기업인 신세계 첼시 유치

< 표 10 > 최근(민선5기) 대전시 기업투자유치 규모

유치기업	투자액
신세계 "대전유니온케어"	4,500억원
(주)웅진에너지 제3공장 건립	5,000억원
(주)한화 국방미래기술연구소	1,000억원
한국반전교육원 종합연수타운	1,000억원
(주)중원정밀 기업이전·생산시설	500억원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 (주)비전과학, (주)사이버메드, (주)디아메스코,	120억원
신규투자 확정금액	1조 2,120억원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 첨단 융·복합 연구원 설립

- 첨단 융복합 연구원 건립 및 첨단융복합연구재단 설립
-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

- 우수기술 발굴 이전 및 기술가치 평가 지원
 - 대덕특구내 출연(연)·대학과 민간 사업화전문회사간 공동 기술발굴, 기술마케팅 수요기술조사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 전문기술평가기관, 보증보험사, 은행 등 관련기관간 평가정보 및 평가인프라 등의 공유를 통한 인적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가치 평가제도의 정착착과 활성화 유도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 기술사업화 관련 학과의 학부 설치 지원
 - 기술사업화 관련 학과의 대학원 설치 및 유치 지원
 - 기술사업화 단기교육과정 개설

2)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

①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 HD드라마타운 유치 계기, 영상문화타운 조성
 - 대전의 문화·관광·MICE 자원 및 인프라를 연계 도시브랜드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 市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 신설(금년 1월) / (가칭)‘대전도시마케팅’ 통합법인 설립 예정

② MICE산업의 발전 교두보 마련

- ‘09~‘10년: 국제회의도시 지정, “MICE 산업도시, 대전”비전선포
 - 세계 도시마케팅인증프로그램(DMAP) 지정 추진(‘11년)
 - ⇒ 인증기관 : 국제도시마케팅협회(DMAI)
 - “제2회 대전·충청 MICE Alliance 총회”개최(‘11. 2.17)
- 국내·외 행사 유치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11년 500건 유치 목표 : ‘10년 485건, ‘09년 404건, ‘08년 216건
 - * ‘10년 직접소비효과 670억원, 연관산업 파급효과 900억원
 - ‘11년 개최 확정 대규모행사의 성공 개최
 - * 디지털 환경 국제심포지엄(5월), 세계화학의 해(9월),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10월), WATER KOREA(11월) 등
- 도시브랜드 제고 가능한 국제규모의 행사 발굴 육성
 - 산·학·연·관의 공동개발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도시 이미지 향상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규모 행사의 기획 및 발굴
 - *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미래과학산업전, 세계인문학포럼 등
- MICE산업을 “부자도시 대전건설”에 중심산업으로 육성
 - 지리적 접근성, 지역내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MICE 산업 확대 노력
 - 다양한 행사를 활용해 대전의 가치, 시민의 자긍심 고취 기회 마련
 - ⇒ MICE산업은 첨단기술, 문화·예술 등의 산업발전에 영향

③ 미래 신산업 육성

- 미래 신산업 육성 기획단 운영
 -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공동체 운영
 - 미래 신산업분야와 전략사업간 연계를 위한 융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추진
- 녹색산업 육성
 - 녹색신기술 개발, 녹색 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 및 성장지원
 - 녹색산업단지 조성
 - 로봇산업 기반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R&DB 클러스터 조성
 - 폐금속 재활용산업 활성화
- 항공우주 및 국방산업 육성
 - 항공우주 글로벌 마켓 공동진출사업 전개
 -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국방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
 - 원자력사업화단지 조성
 - 국제원자력대학(INU) 설립
 - 국제역량강화센터(ICBC)설립
 - (가칭) 중앙원자력의학원 설립

3) 유연하고 혁신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① 유연하고 혁신적인 지속가능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 지역내총생산 대비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의 산업경제 접목에 의한 지식 자본의 효율이 극대화된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 고도화
 - 생산과 서비스의 선순환에 의한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구조를 가진 경제패러다임

으로 전환

- 미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지식기반형 신중심경제도시 건설
 - 대전이 지식기반형 신중심 경제도시로 강점을 갖고 있는 물류·유통, 교육·연구, 행정, 응용과학기술이 특화된, 유연하고 혁신적인 산업구조의 지식·창조도시 건설
 - 응용과학기술의 사업화에 의한 벤처기업 중심의 창조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생산 구조를 연계한 혁신적 지역경제시스템 정착
- ▷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지수 끌어 올림.

② 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 지역산업 R&D지원센터 및 R&D지원 사업
 - 지역내 창업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및 R&D 지원사업 실시
- 부품소재평가분석센터 설립
 - 각종 부품소재의 평가분석센터 설립
- Pilot Plant 설비 구축
 - Pilot Plant 설비 구축을 통한 생산 및 R&D 생산 및 R&D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③ 자영업주를 포함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영세 자영업주가 많이 분포한 공공·운수, 도소매 및 음식점업체의 개인서비스업 활성화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확보 가능성 사업체 지원, 업종전환 및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선택적 지원책 강구
-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 대형마트, SSM 등의 진출 확대에 따른 위축된 지역전통시장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

④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마케팅 추진
 - 고부가가치 소물리에 경기대회 개최
 - ※ 대전컨벤션뷰로와 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 WACS조직위 w관으로 5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12년 푸드&와인축제를 위한 세미축제 형식으로 제7회 한국구가대표 소물리에 경기대회 개최
- 문화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 참여하기 활성화
 - ※ 후원회 700명, 정기회원 4,000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 말까지 7개 위원회와 5개 정기회원 중 자율적으로 설별가입 추진
- 기업,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시민에 대해 대
전문화특별시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 확산방안 계획
- 기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 대전은 전국 최고수준의 환경도시로써 산업과 환경·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심 네트
트워크 구축 등 쾌적한 환경조성, 암 의료센터 등 문화·교육·의료 인프라 지속적
확충
 - 공원시설이나 녹지공간, 생활체육시설 확충, 테마파크 건립
 - 생활공동체 지역단위 각종 쇼핑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수시연구보고서 2011-05

부자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3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